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명씨대종보 제24호

明氏大宗報

明氏大宗會

발행인 : 명제태 편집인 : 명영철 편집국장: 명영식 발행처: 413-883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408번길 49 명씨대종회 / 명영식 전화: 031-527-3126 팩스:031-527-3128

추향대제 봉행, 명문의 뿌리 잇고 미래를 준비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0여 명의 종친, 선조의 뜻을 기리고 화합의 시간 가져



명씨대종회는 지난 2026년 10월 3일 추향대제를 봉행하고 선조의 은덕을 기리는 한편, 종친 간 화합과 대종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25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해 선조를 추모하고 명문의 전통과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명제태 대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한 종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제례를 위해 사당 주변을 정비하고 음식과 행사 준비에 힘쓴 임원 및 종친들과 제례 진행을 맡은 영수 종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제21대 태식 회장, 제23대 동성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의 참석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대종회의 든든한 어른으로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명 회장은 대종회의 주요 현안인 전자족보 편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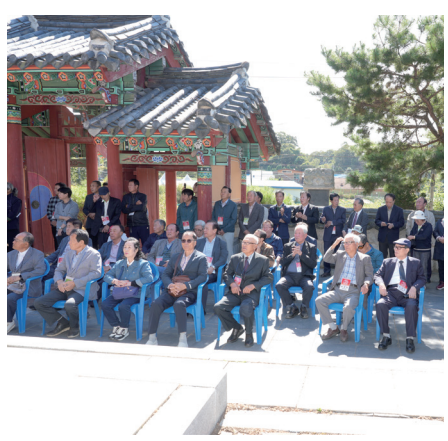
명씨대종회는 2년 전 전자족보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명씨의 역사와 계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명영식 전자족보편찬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종친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종친들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족보는 기존 책자 형태의 족보와 달리 **기록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수 있는 선대의 기록과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명 회장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강조하며 전자족보 편찬에 대한 종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면에 계속됩니다.〉









선조의 은덕을 기리며, 명문의 뿌리를 되새기다

2026년 10월 3일(토) 오전 11시 | 파주 경모사 추향대제 참관기

이어 명 회장은 종친들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자족보 편찬 사업을 알리고,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25대 회장 취임 이후 종친 간 소통을 주요 과제로 삼아 대종보 발행을 재개하고 홈페이지와 SNS 소통방을 마련하는 등 대종회 운영에도 변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젊은 종친들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선조에 관한 문헌과 역사 자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명 회장은 **세대를 아우르는 종친들의 교류와 화합을 강조하며, 이번 추향대제가 대종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참석 종친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추향대제는 선조를 향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명씨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연휴 중에도 한자리에 모인 종친들은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명씨 대종보 편집국〉















■ 사진으로 보는 2026 추향대제

















명씨 훌륭한 선조 찾기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에 평생을 바친 허당 명도석 선생

| 일제강점기 마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민족교육·사회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



허당 명도석 선생 흉상(경남 마산)

허당(虛堂) 명도석(明道奭, 1885~1954) **선생은 일제강점기 경남 마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에 헌신한 애국지사이자 우리 명씨의 자랑스러운 선조**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1885년 4월 3일 경남 마산 중성리에서 태어났다.

1907년 마산 노동 야학교를 설립해 노동자와 청소년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여성 교육에도 힘썼다. 1916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일합사(一合社)를 조직했으며, 1919년 3·1운동 당시 마산 지역 만세 시위 준비와 자금 지원에 참여했다.

같은 해 민족경제의 자립을 위해 원동무역(元東貿易) 설립을 추진하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과 물산장려운동에도 앞장섰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 마산지회 설립을 주도했으며, 1929년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일제 말기에는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1944년 건국동맹의 경상남도 조직책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마산지부 위원장을 맡았다.

1954년 세상을 떠난 선생에게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헌신은 명씨 후손들에게 귀감으로 남아 있다.





뿌리 이야기

현궁지비(玄宮之碑)를 통해 본 대하국 왕조의 국가상

– 명옥진 후손의 시각에서 바라본 선조의 건국과 국가체제 –



※ 본 기사는 원저자가 작성한 글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 것입니다.
해당 글은 명씨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랑공파 24세손 명 중 재

Ⅰ. 들어가며

역사는 가문과 왕조의 기억을 이어주는 가교 다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하국 태조 명옥진(明玉珍)의 후손에게 현궁지비(玄宮之碑)는 단순한 금석문이 아닌 선조의 생애와 대하국의 건국 과정, 그리고 당시 왕조가 스스로 어떠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는지를 전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명옥진은 원말의 혼란 속에서 성장하여 서수휘(徐壽輝)의 송(宋) 정권에 참여하였고, 이후 사천 지역을 평정하여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였다. 그는 1363년 중경에서 국왕에 즉위하였으며, 이듬해 국호를 대하(大夏)로 정하고 연호를 천통(天統)으로 하였다.[1]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한 군사 지도자가 지방정권을 세운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옥진이 지향했던 것은 보다 체계적인 왕조 국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현궁지비가 명옥진 개인의 군사적 업적만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궁지비는 원말의 혼란, 명옥진의 군사적 성장, 사천 정복, 민심의 확보, 왕위 즉위, 황제국 선포, 태묘의 설치, 조상 추존, 관료제 정비, 황태자 책립과 왕위 계승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왕조 건국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 글에서는 명옥진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현궁지비를 통해 선조의 행적을 바라보고 대하국이 어떠한 국가상을 지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후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궁지비

현궁지비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명옥진의 사후에 대하국 조정의 최고위 관료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비문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金紫光祿大夫太傅中書左丞相錄軍國重事臣戴壽填諱」
금자광록대부 태부 중서좌승상 녹군국중사 신 대수 전휘
「金紫光祿大夫少傅中書右丞相錄軍國重事監修國史臣劉楨撰文書丹」
금자광록대부 소부 중서우승상 녹군국중사 감수국사 신 유정 찬문 서단
「榮祿大夫知樞密院事臣向大亨篆額」[3]
영록대부 지추밀원사 신 상대형 전액

대수(戴壽)는 태부이자 중서좌승상, 유정(劉楨)은 소부·중서우승상·감수국사, 향대형(向大亨)은 지추밀원사였다. 즉 행정·문화·군사를 대표하는 대하국의 최고위 관료들이 선조 명옥진의 현궁비 제작에 참여한 것이다.[4]현궁지비는 후대의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가문의 전승물이 아니라, 대하국이라는 국가가 태조 명옥진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국가적 기념물인 사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궁지비를 읽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비문에 기록된 명옥진의 역사적 행적이고, 다른 하나는 대하국 조정이 선조를 어떠한 군주로 기억하고자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궁지비는 단순한 '묘비'를 넘어 대하국의 정치적 자기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혼란의 시대에 나타난 선조 명옥진

현궁지비는 명옥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설명한다.

「元末天下大亂, 英雄崛起, 生民無所依賴.」
원말 천하대란, 영웅굴기, 생민무소의뢰

비문은 원말을 '천하가 크게 혼란한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백성들은 전란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고, 각지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명옥진은 서수휘의 송 정권에 참여하였다.

「淮人立徐主稱皇帝於蘄陽，頒萬壽歷，建元治平，國號宋。明年，
太祖杖劍從之.」
회인립서주칭황제어기양, 반만수력, 건원치평, 국호송, 명년, 태조장검종지

이 부분은 선조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대목이다. 명옥진은 처음부터 황제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당시 등장한 정치세력에 참여하여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고 성장하였다. 비문은 이어 그가 8년 동안 공을 세워 '봉국상장군·통군도원수'에 이르렀다고 기록한다. 즉 선조의 왕조 건국은 처음부터 계획된 독립국가의 창건이라기보다는 원말의 혼란 속에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기반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Ⅳ. 사천에서 시작된 국가의 기반

명옥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사천 진출이었다. 서수휘가 명옥진에게 서쪽 지역을 평정하도록 명하면서 명옥진은 촉지방(서쪽)으로 진입하였다. 비문은 이때의 선조를 단순한 정복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太祖既入蜀, 軍律嚴整, 所至不獨用武, 惟以拯救為尚.」
태조기입촉, 군율엄정, 소지부독용무, 유이중구위상

'무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우선하였다'는 이 표현은 명옥진의 통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어 비문은

「遠邇聞風, 相繼款附, 如赤子之慕父母.」
원근문풍, 사예관부, 여적자지모부모라고 기록한다. 즉 명옥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귀부하였으며, 백성이 부모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를 따랐다는 것이다. 여기서 款附(관부)는 문맥상 "성심으로 귀순하여 따르다","자발적으로 복종하여 따르다"는 의미로서, 선조의 덕을 기리는 문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시 대하국의 건국 정당성은 단순히 군사력에 의한 정복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며, 전란 속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질서를 회복했다는 '구제와 민심'의 논리를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Ⅴ. 왕위에 오르기까지 – 민심을 통한 정당성

명옥진이 사천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뒤에는 진우량(陳友諒)과의 관계가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었다. 비문은 진우량이 명옥진에게 왕작을 제안했으나 명옥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이후 서수휘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명옥진은 진우량의 사신을 죽이고 문서를 불태우고 죽은 서수휘를 위해 상을 치루었음을 기록한다.

「乃斬使焚書，三軍縞素，為宋主發喪.」
내참사분서, 삼군호소, 위송주발상

이 장면은 선조가 자신이 처음 섬겼던 서수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로 기억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명옥진이 진우량의 한 정권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비문은 명옥진의 왕위 즉위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父老豪傑告留曰:『生民無主, 欲將何之？』」
부로호걸고류왈: [생민무주, 욕장하지?]

부로와 호걸들이 만류하여 말하길 "백성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와 같이 장수들이 명옥진의 존재를 강조하며, 추대의 뜻을 밝힌 뒤 이를 받아들여 중경에서 국왕에 즉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始允眾志, 以其年十月望日即國王位於重慶之行邸.」
시윤중지, 이기년 시월망일 즉국왕위어중경지행저

"비로서 여러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 중경의 행저에서 국왕의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중경의 왕궁을 스스로 차지하였다'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방식으로 즉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옥진 왕조가 자신의 건국을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백성과 장수들의 추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Ⅵ. 대하국 황제국의 성립

명옥진의 정치적 위상이 왕에서 황제로 변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현은 다음 구절이다.

「受皇帝璽綬,國號大夏,改元天統,曆曰先天.」
수황제새수, 국호대하, 개원천통, 역왈선천

황제의 옥새를 받고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연호를 천통으로 고쳤으며 역법을 선천이라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구절은 가장 자랑스러운 왕조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옥진이 단순히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국호·연호·역법을 독자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대하국이 스스로를 독립된 정치질서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즉 대하국은 원말의 혼란 속에서 형성된 지방 군사세력에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독자적인 황제국의 제도와 상징을 갖추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Ⅶ. 태묘와 조상 추숭 – 왕조의 뿌리를 세우다

대하국의 왕조의 뿌리가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질수 있는 문구 중 하나는 조상 추숭과 태묘의 설치이다. 비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立太廟，追謚顯考郎曰欽憲…皆追王曰皇帝、皇后，祀以天子禮樂，與郊社並隆.」
입태묘, 추시 현고랑왈 흠헌… 개추왕왈 황제,황후, 사이천자예락, 여교사병륭
태묘를 설치하고 선대 조상인 낭(郎)에게 시호를 올리며 흠헌하였으며, 모두 추존하여 황제와 황후라 하고,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를 지내고, 교제와 사직의 제사와 함께 그 위엄을 성대하게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종교의례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황제의 권력만이 아닌 가문과 선대의 계보를 황제국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신의 선조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하고 태묘를 설치함으로써 대하국의 왕통을 가문의 역사와 연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조상숭배' 가 아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후손들의 기억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왕조의 계보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Ⅷ. 대하국의 중앙정부 – 중서성과 추밀원

현궁지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는 대하국 중앙정부의 관료 명단을 남겼다는 데 있다. 비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中書省左丞臣孫天祐、右丞臣劉仁、參知政事臣江儼、徐汪……」
중서성 좌승 신 손천우, 우승 신 유인, 참지정사 신 강엄, 서왕….
「樞密院同知臣王元泰,朱輔,副使臣鄧立,沈友才,劉銘…簽院臣李聚,竇文秀,周景榮,田繼坤立石.」 추밀원동지신왕원태, 주보, 부사 신 등립, 심우재, 유명… 첨원 신 이취, 두문수, 주경영, 전계곤 입석

이를 통해 대하국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중서성과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추밀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관직	비문에 나타난 인물	국가적 기능
행정	중서성 좌승	손천우	중앙 행정
행정	중서성 우승	유인	중앙 행정
행정	참지정사	강엄·서왕	국정 심의
군사	추밀원 동지	왕원태·주보	군사 행정
군사	추밀원 부사	등립·심우재·유명, 명종정, 명종덕	군사 실무
군사	첨원	이취·두문수·주경영·전계곤	군사 문서·행정

기타 관직의 표시가 없는 명종예, 명종철은 종친으로, 마문경은 조정 대신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관직 구조는 대하국이 상당한 수준의 중앙 행정 및 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서성과 추밀원이라는 명칭은 원대의 정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대하국은 원대의 제도적 경험을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이를 독자적인 황제국 체제 안에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하국이 단순한 군사 집단이나 지방정권이 아니라 행정관료와 군사 관료를 조직하고, 황실과 관료가 함께 국가의 의례와 행정을 수행하는 왕조국가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Ⅸ. 황후와 동궁 – 왕조의 미래를 준비하다

현궁지비는 명옥진의 왕조가 선조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는 국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왕조를 만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비문에는 기록된

「越明年，典后，立東宮。」 월명년, 전후, 입동궁

에서 황후를 세우고 동궁을 설치했다는 것은 왕조의 계승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명옥진은 재위 6년 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비문은 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傳位皇太子,詔皇后同處分,俾維持以正大統.」
전위황태자, 조황후동처분, 비유지이정대통

황태자에게 왕위를 전하고 황후에게 국정 처리를 함께 맡겼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대하국이 왕조의 정통성을 단순히 창업자인 명옥진 개인에게만 두지 않고 황태자를 통한 왕통의 계승으로 이어가려 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대하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Ⅹ. '人心所歸，即天命所在' – 후손이 바라보는 선조의 통치이념

현궁지비 전체에서 후손의 입장에서 가장 오래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蓋仁心愛人,而人慕之,人心所歸,即天命所在.」
개인심애인, 이인모지, 인심소귀, 즉천명소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사람의 마음이 돌아가는 곳에 천명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문장은 명옥진 왕조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정치논리라고 할 수 있다. 선조 명옥진은 군사력을 통해 사천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현궁지비는 그를 단순한 무장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백성을 구제하고, 질서를 세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군주로 기억한다. 선조의 역사를 단순히 '왕조를 세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과 '혼란한 시대에 백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로 기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비문이 태조의 사후에 작성된 공식적인 공덕비라는 점에서 일정한 찬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모두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명옥진 어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였고,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명옥진을 따랐는지, 백성들의 시선이 명옥진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XI. 현궁지비를 통해 본 대하국의 국가상

현궁지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하국의 국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건국	「即國王位」	즉극왕위	국왕위에 즉하다	독자 왕권 성립
황제국	「受皇帝璽綬」	수황제새수	황제의 옥수와 인수를 받다	황제권 확립
주권	「國號大夏」	국호대하	국호를 대하라 하다	독자적인 국호
시간질서	「改元天統」·「曆曰先天」	개원천통, 역왈선천	연호를 천통으로 역을 선천이라 하다	독자 연호·역법
행정	「中書省」	중서성	행정기관	중앙 행정체계
군사	「樞密院」	추밀원	군사기관	중앙 군사체계
제례	「立太廟」	입태묘	태묘를 세우다	왕조 제례체계
정통성	「人心所歸，即天命所在」	인심소귀, 즉천명소재	인심이 귀의하는 바가 곧 천명이 소재하는 바이다	민심과 천명에 의한 정당화
왕조 계승	「立東宮」·「傳位皇太子」	입동궁, 전위황태자	동궁을 세우다 황태자에게 위를 전하다	황통 계승체계
외교	「斬使焚書」	참사분서	사신을 참하고 서를 불사르다	독자적 정치노선

XII. 맺음말 – 후손에게 남겨진 역사

명옥진의 후손으로서 현궁지비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한 선조의 영광을 되새기는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비문에 기록된 한 왕조의 탄생과 소멸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기억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명옥진은 원말의 혼란 속에서 군사적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는 사천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였으며, 민심을 자신의 통치 정당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다. 이후 중경에서 왕위에 올랐고,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연호를 천통으로 바꾸면서 황제국을 선포하였다. 그는 태묘를 설치하고 선대 조상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했으며, 중서성과 추밀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황후와 동궁을 세우고 황태자를 통한 왕위 계승도 준비하였다. 그러나 왕조는 선조의 죽음 이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현궁지비는 대하국이 단순한 군사 세력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왕조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후손의 입장에서 현궁지비를 읽으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人心所歸，即天命所在'라는 문장이다. 선조의 왕조가 역사 속에서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후손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궁지비는 단순한 과거의 비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하국의 건국과 정치체제, 선조 명옥진의 통치이념, 그리고 한 왕조가 스스로의 정통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후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조의 업적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궁지비와 여러 역사자료를 함께 살펴 그 시대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궁지비는 명옥진의 무덤 앞에 세워진 하나의 비석을 넘어, 원말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한 인물이 어떠한 국가를 꿈꾸었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하국의 역사적 증언이라 할 수 있다. 현궁지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선조는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어떠한 나라를 꿈꿔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명옥진의 후손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부모님의 입에서 전해들은 명씨에 대한 기록들이, 조선 시대에 미쳤던 명씨 선조들의 발자취들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현궁지비를 들여다 보고, 조선실록등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귀로만 들었던 역사의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나의 자녀에게, 내 자녀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할 뿌리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직접 확인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자녀들이 자랑스런 명씨의 후손임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주
1「玄宮碑」「受皇帝璽綬，國號大夏，改元天統，曆曰先天」.
2「玄宮碑」 전체 참조.
3「玄宮碑」 서두부분.
4 비문. 대수·유정·향대형의 관직은 각각「太傅中書左丞相」,「少傅中書 右丞相……監修國史」,「知樞密院事」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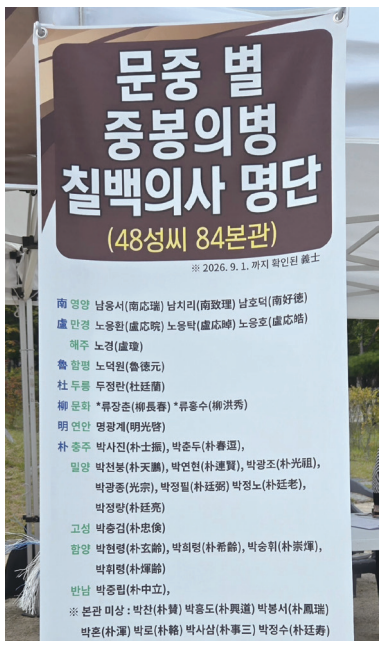
칠백의사 순의 제434주년 제향 참석

| 명씨대종회, 명광계 선조 추모 및 위패 봉안 염원



지난 **9월 23일 충남 금산 칠백의총 종용사에서 거행된 '칠백의사 순의 제434주년 제향'**에 명씨대종회 명영철 사무총장과 명남재 종친이 참석해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명광계(明光啓) 선조의 숭고한 충절을 기렸다. 제향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칠백의사 후손 문중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22개 문중후손이 참석했으며, 명씨 문중에서도 명광계 선조의 후손으로 회의에 함께했다.

총회에서는 종용사와 승장사의 옛 위치 확인 및 승장사 복원 문제를 비롯해 종용사 또는 경내에 칠백의사 개인 성명을 게시하는 방안 등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 명광계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조헌 선생 등이 이끄는 의병과 함께 왜적에 맞서 싸우다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명씨의 자랑스러운 선조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용사에 위패가 봉안되지 못한 상황이다.









명씨대종회는 선조의 충절과 희생이 올바르게 기억되고, 명광계 선조의 위패가 종용사에 봉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제향 참석은 선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명씨대종회 사무총장 명영철〉

명대산악회, 강화 교동도 망향비 참배

| 9월 정기산행에 30명 참석… 팽황후 선조 추모하며 종친 간 화합 다져

명씨대종회 명대산악회는 지난 2026년 9월 12일 강화군 교동도에서 9월 정기산행을 겸한 망향비 참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대종회 임원과 회원 및 가족 등 30명이 참석해 선조의 은덕을 기리고 친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북녘의 고향 땅을 바라보며 팽황후 선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교동도 망향비 앞에서 정성껏 차례를 올리고 숭조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명환주 고문 내외를 비롯해 명제일 명륜회장, 명순식 자문위원장, 명영식 산악회장, 명재문·명노석 부회장, 명효남·명성순 상임이사, 명영철 사무총장, 명재택 전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창원의 명청일 회원은 가족 3대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따뜻한 찬조도 이어졌다. 명홍식 종친과 김현희 여사는 30년산 도라지주와 코냑을, 명효남 상임이사는 찹쌀떡을 준비했다. 명영식 산악회장은 닭발편육을, 명노석 부회장은 막걸리를, 명영옥 종친 내외는 김밥과 과일을 마련했으며, 명재문 부회장 내외는 푸짐한 해산물을 제공해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참석자는 정성껏 마련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선조의 뜻을 기리는 동시에 종친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편, **명대 산악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 산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종친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파주 경모사를 묵묵히 지키는

숨은 봉사자들

명홍식·김현희 부부와 명태식 종친의 정성, 경모사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명씨대종회의 정신적 구심점인 파주 경모사가 늘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종친들을 맞이할 수 있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의 손길이 있다. 그 중심에는 명홍식 종친과 부인 김현희 여사, 명태식 종친이 있다. 이들은 올해 추향대제를 앞두고 8월 19일과 9월 18일, 추향대제 전날인 10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모사 사당 안팎을 정성껏 정비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10월 5일과 6일 노후된 사당 데크 철거 작업을 직접 챙기며 시설 관리에 힘을 보탰다.

지난 4월에는 행사장 벽체를 직접 쌓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명노석·명효남 이사가 유리창 설치 비용을 사비로 찬조하면서 행사장은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한층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고,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이들의 봉사는 경모사 관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태안 출신인 명홍식 종친은 지난 『대종보』 제18호에 소개된 1776년 발행 병신보의 기증 의사를 밝힌 명헌식 종친과 형제간이다. **형제가 나란히 선조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대종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선조를 모시고 종친들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경모사가 오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종친들의 정성과 헌신 덕분**이다.

명홍식·김현희 부부와 명태식 종친의 한결같은 봉사는 명씨대종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의 따뜻한 실천이 앞으로도 많은 종친에게 이어져 경모사를 아끼고 지켜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래 표는 2026년도 추향대제 찬조 내역을 종합한 자료입니다 2026.10.03

(단위: 원)

금액	금액 및 현물	
명제태 (대종회 회장)	수건셋트 (200)	금산문중회 인삼주(大)
100만원	명영철	
50만원	창원종친회, 금산문중회, 태안문중회, 명광길, 명호근, 명영준	
30만원	보령화수회, 청양종친회, 서천종친회, 서울경기북부회, 명륜회 ,명대산악회	
	명효남, 명태식(전임 회장님) , 명제설(태안) 명노준, 명순식	
20만원	수원종친회, 서산종친회, 고흥덕흥종친회, 명동성,명영식 명성순, 명영옥, 명노경	
	명형순(독립유공자 명태승유족회), 명영수, 명제익, 명성섭 명노선(서산),명노석	
	명창환(금산),명판식, 명응식(태안), 명경민(고흥), 명의선 명제왕,명병윤(여수)	
15만원	명광연 (고흥)	
10만원	명승식(청양), 명중식(청양)명해관(수원), 명노형(서천) 명치호(청양)	
	명노영(청양), 명병현,명노각(청양), 명노운(청양) 명노섭(청양), 명성식(청양)	
	명노환(청양), 명노연(양산), 명환주(천안), 명병산(금산) 명충환, 명제의(태안)	
	명제배(태안), 명임식(태안), 명의식, 명진식, 명계복, 명제능 명영배, 명광호(부산)	
	명상하, 명한식, 명찬식, 명준석(해남), 명제희, 명용표 명제일, 명안창(인천)	
	명환철(인천), 명종수(창원), 명재필(수원), 명노헌	
5만원	명노현, 명제광, 명재균(24세손,청양), 명숙희(재문 동생)	
재능기부	명화진, 명남식, 명재원(황제탕요리), 명영식, 명노석	
	명홍식, 명태식(페인트 칠,농약등)	
합계	금15,500,000원	

26년도 추향대제를 위해 보내주신 종친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태흥산업기전(주) ■ 태흥기전: 명영준(25세손)

수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전문 제작업체

30여년간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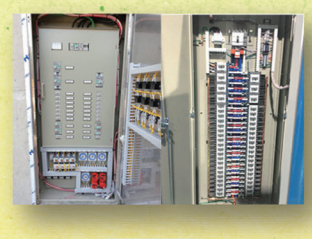
www.taeheungsanup.co.kr

<주요생산품목>
수, 배전반 Moter제어반 중앙감시제어반
계장제어반 분전반 충전기 집합 계량기함


고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저압배전반


분전반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109 (기지리 973번지) Tel. 031)536-9339 Fax. 031)536-9336 E-mail. joon9340@hanmail.net

종친 애,경사 및 동향

부음 2026. 08. 29 명한식님의 배우자
김영자님 별세

明氏大宗會

명씨대종보 문의 및 구독신청

▶명씨대종보 발행인
명제태 회장 010-2399-6233
이메일 jayatool521@naver.com
▶명씨대종보 편집국장
명영식 부회장 010-6233-8204
이메일 mys3540@hanmail.net
▶명씨대종보 편집인
명영철 사무국장 010-8551-6936
이메일 my1857@naver.com

명씨대종회 종친 회비 및 후원계좌 안내

명씨대종회 발전을 위해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 392801-04-176571
명씨대종회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종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무국장 010-8551-6936

명씨대종보 기사투고 및 광고안내

▶명씨대종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 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된 종친께서는 대종보 발송을 위해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도 가능합니다.(010-8551-6936)

(주) 비 경

페인트, 방수 시공 전문 업체

경기도 의왕시 1위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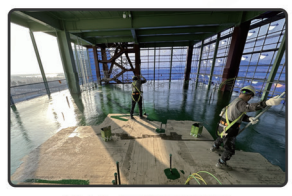
■ (주)비경 : 대표 명노성(23세손) 010-3799-5700

- 빌딩 / 상가 / APT
- 병원, 주차장, 옥상
- 방수 및 단열 공사
- 시공 전문 업체

Tel. 031-462-5507
FAX. 031-462-5508
Email. bkc9704@naver.com


상업, 주거시설
내·외부 도장 공사


조형물 등
특수 도장 공사


옥상, 주차장바닥
방수 및 에폭시 공사


우레탄 단열공사
내화, 흡음 뿜칠 공사


주차장, 도로, 공원
차선 도색공사

정담의전

■ 정담의전: 명재익(24세손) 010-9922-0042

장례서비스, 전액 100% 후불제
믿을 수 있는 정당의전이 함께합니다.

명씨대종회와 협약된 정당의전은 거품 없는 합리적 가격과
품격 있는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전액 후불제로 제공합니다.

상품가격 330만원

상담 전화
장례 절차와 상품 예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644-1350

임종 전화
임종 접수 및 신속한 대응으로
유가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1588-4844

모든 장례는 3일 기준으로 합니다 | 서비스 지역 : 전국구 (도서, 섬지역 불가) | 명씨대종회와 장례서비스 제휴업체 정담의전